

대한조선 세번째 선박 띄웠다

오늘 17만500t급 벌크선 'HN-1017호' 인도 실물 경제 위기 속 지역 경제 활성화 큰 기여

글로벌 경제위기가 국내 실물경제에까지 파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조선(사장 김호충)이 세번째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20일 해남군에 위치한 해남조선소는 제1안벽에서 HN-1017호를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인도하는 선박은 길이 289m, 폭 45m, 높이 24m에 15.6노트로 운항할 수 있는 17만500t급 벌크선이다.

이에 앞서 대한조선은 지난 6월과 9월 노르웨이 골든오션그룹이 발주한 17만500t급 벌크선인 미스티호와 퀴로버트호를 성

공적으로 건조, 인도한 바 있다.

이번에 인도하는 HN-1017호는 지난 10일 제주도 해상에서 4일간의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일 인도를 앞두고 해운사의 첫 영문 이니셜을 따 'C.WINNER' 호로 명명됐다.

이와함께 대한조선은 1도크에서 오는 30일 진수예정인 HN-1003호선의 막바지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후속선인 HN-1013호선 역시 공정을 30%를 보이며 킬레이(Keel laying, 용골거치)를 준비하고 있다. HN-1003호선이 오는 12월 말 선주에게 인도될 경우 대한조선은 '2008년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4척 인도'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대한조선은 지금까지 3척의 벌크선을 건조 완료하면서 기술력과 노하우가 쌓여 선박의 품질에서만큼은 국내 대형조선소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조선은 최근 신설된 조선소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제 1도크는 정상가동 중으로 2개월에 1척씩 선박을 건조하고 있으나, 1도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길이를 400m에서 460m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탠덤(TANDEM)공법'을 실현하는 것으로, 연장된 1도크에서 동시에 1.5척을 건조해 도크회전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오는 12월 중순경 1도크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1도크에서만 연간 10척 이상의



20일 선주에게 인도될 HN-1017호선이 대한조선 인근 해상에서 시운항을 하고 있다. HN-1017호선은 대한조선이 친환경공법으로 건조한 세번째 선박이다.

케이프사이즈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된다. 대한조선 관계자는 "모든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현 융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이룬 기반을 토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금융권의 신속한 자금지원이 더해지면 경쟁력과

내실을 갖춘 조선소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대한조선 기술력 세계 최고

업계 호평 잇따라... 1호선 우수선박 선정

국내의 경제위기 속에서 대한조선이 20일 세번째 선박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첨단기술의 승리'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1·2호선박에 이어 3호선까지 국제선급연합회(IACS)가 규정한 공통규조규칙 기준을 충족시킨 친환경 선박으로 평가받으면서 신생 대한조선의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인도한 첫 선박인 '미스티'는 세계 3대 조선·해운 전문지 중 하나인 네이빌 아키텍트(Naval Architect·영국)로부터 '2008 세계우수선박'에 선정돼 관련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우수선박은 세계 3대 조선·해운전문지(네이빌아키텍트, 마린타임리포터, 마린로그)가 매년 그해 건조된 선박 중에서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명품 선박을 가리는 것으로, 신생 조선사가 건조한 첫 선박이 선정된 것은 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1·2호선 인도 이후 하자 보수 등 클레임이 거의 없었던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한조선 관계자는 "1·2호에 이어 3호선의 정상적인 인도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후판가격 폭등 등 잇따른 악재를 불식시킨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재래시장 시설 개선 앞장

전기 안전 서비스 향상도"



광주 은 임인배 전기안전공사 사장

선에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임인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54)은 19일 "전국 지역본부의 효율적인 업무 배분을 통해 광주·전남의 전기안전 관련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 각각 전기안전 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사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광주·전남의 시장과 고시원, 체육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며 "무엇보다 곡성군 옥과시장 등 지역내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사장은 "전기안전공사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복지 수준이 타 공사에 비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임 사장은 "광주·전남 등 국내 화재의 상당부분이 누전 등 전기안전과 직결된다"며 "각종 전기안전 관련 시스템 확충과 홍보 등을 통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 비중을 전체의 20% 이하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임 사장은 또 "전남의 경우

김장비용 양동시장이 싸다

중기청 조사... 대형마트보다 48% 가량 저렴

올해 김장을 할 때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 얼마나 차이가 날까.

광주 양동시장에서 김장(4인가족 기준)을 할 경우 대형마트보다 김장비용을 48% 가량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소기업청 시장경쟁지원센터가 김장 성수기를 앞두고 최근 광주를 비롯해 서울·부산·대구 등 7개 지역 내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배추·무·파·소금 등 15개 김장용품에 대한 가격을 비교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결과 올해 김장준비에 소요된 비용으로 양동시장은 14만5천375원, 대형마트는 21만5천341원으로 양동시장이 무려 6만9천966원(48.1%) 저렴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의 경우 양동시장은 6만3천750원, 대형마트는 7만4천360원으로 양동시장이 16.6% 낮았다. 양념류는 양동시장(5만6천500원)이 대형마트에 비해 무려 22.24%, 새우젓 등 열건어게류도 양동시장(1만4천원)이 93.7%나 싸다. 굴 등 선

■올해 김장비용 비교(4인가족 기준)

구분	양동시장	대형마트
배추	20,000	25,280
무	10,500	15,180
마늘	7,250	7,450
고춧가루	37,500	75,000
천일염	3,750	7,931
새우젓	10,000	14,800
굴	11,125	16,540

어게류는 양동시장이 1만1천125만원인 반면 대형마트는 1만6천540원에 달해 48.7% 저렴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에서 배추의 경우 양동시장 2만원인 반면 대형마트는 2만5천280원으로 26.4% 저렴했고, 무 1만500→1만2천980원(-23.6%), 알타리무 6천→1만1천940원(-99%) 등 큰 차이를 보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 IT기업 동남아 40억 수출 양해각서

광주 지역 IT기업들이 동남아에서 40억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지난 11일부터 4일간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해의 비즈니스상상회'에서 이갈

은 성과를 올렸다. 참여 기업은 ㈜앞선교육지역 등 지역 IT 관련 8개 업체다. e러닝 업체인 ㈜앞선교육과 S/W 개발업체인 ㈜리눅스아이티는 현지 기업들과 40억여원의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0월 부도 기업 321개

한달새 118곳 늘어... 3년 7개월만에 최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난달 부도업체수가 3년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부도업체수는 전월보다 118개(58.1%) 늘어 321개로 집계됐다. 이런 부도업체 수는 2005년 3월 359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며, 증가규모는 작년 10월 120개 이후 최대다.

올해 들어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매월 200개 안팎을 유



지해 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월 66개에서 10월 109개로, 건설업은 49개에서 65개로 각각 늘었으며 특히 서비스업은 74개에서 133개로 배 가까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0개에서 111개로 증가했고 지방은 123개에서 210개로 87개가 늘었다.

/연합뉴스

봉/선/동 아이엘리시아

충남지역 최대 규모로... **062) 671-1199**

보양음료 숙취해소

아직도, 힘들게 보약을 달여 드십니까?

062-267-7753